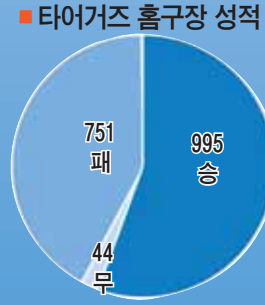




광주시민과 히로애락을 함께 해온 무등경기장이 KIA 타이거즈 홈구장으로의 32년 역사를 마감한다. 2014시즌 KIA 타이거즈의 홈경기는 올 연말 완공될 '광주-KIA 챔피언스 필드'에서 치러지게 된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무등경기장의 1965년 건립 직후 모습(위)과 공사가 한창인 새 야구장 전경. /김진수기자 jeans@

아듀! 무등야구장 (1965~2013)



타이거즈 V10



| 년도 | 1983 | 1986 | 1987 | 1988 | 1989 | 1991 | 1993 | 1996 | 1997 | 2009 |
|-----|------|------|------|------|------|------|--------|------|------|------|
| 상대팀 | MBC | 삼성 | 삼성 | 빙그레 | 빙그레 | 빙그레 | 삼성 | 현대 | LG | SK |
| 전적 | 4승1무 | 4승1패 | 4승 | 4승2패 | 4승1패 | 4승 | 4승1무2패 | 4승2패 | 4승1패 | 4승2패 |

연도별 관중 수 (누적 관중 1030만 7887명)

| | | | |
|------|----------|------|----------|
| 1982 | 26만1182명 | 1998 | 15만6793명 |
| 1983 | 37만7964명 | 1999 | 17만2729명 |
| 1984 | 19만6278명 | 2000 | 6만9203명 |
| 1985 | 30만1188명 | 2001 | 28만4486명 |
| 1986 | 30만7814명 | 2002 | 23만1955명 |
| 1987 | 21만7616명 | 2003 | 26만6111명 |
| 1988 | 21만0959명 | 2004 | 15만5881명 |
| 1989 | 32만6607명 | 2005 | 16만6197명 |
| 1990 | 36만1074명 | 2006 | 20만4148명 |
| 1991 | 37만2386명 | 2007 | 20만7232명 |
| 1992 | 39만0871명 | 2008 | 36만7794명 |
| 1993 | 44만3841명 | 2009 | 58만2005명 |
| 1994 | 38만8118명 | 2010 | 43만6285명 |
| 1995 | 43만1302명 | 2011 | 59만2669명 |
| 1996 | 46만8922명 | 2012 | 50만2016명 |
| 1997 | 39만8922명 | 2013 | 46만2424명 |

'별들의 고향' 무등야구장을 빛낸 선수



'바람의 아들' 이종범

'광주-KIA 챔피언스 필드' 공정률 70% 내년부터는 최고의 구장에서 우승 도전

완공 앞둔 광주 새 야구장

내년부터 KIA 타이거즈의 새 동지가 될 '광주-KIA 챔피언스 필드'는 올 연말 완공 예정으로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새 야구장은 총 사업비 994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5층, 2만2244석 규모로 건설되며 최대 2만7000명의 관람객을 수용하게 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장에 친환경 구장으로 설계된 새 야구장은 기존 야구장보다 관람객의 편의시설은 물론 선수의 휴식 공간을 대폭 확충했다. 특히 국내 최초의 개방형 콘코스(Concourse)를 도입해 화장실이나 매점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홈플레이트에서 관중석까지의 거리는 18.44m와 비슷한 전국 야구장 중 가장 짧은 18.5m다. 선수들과 가까워지면서 바로 앞에서 야구를 보는 듯한 느낌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홈에서 좌우 펜스까지 거리는 99m, 펜스 중앙까지는 122m로, 기존 야구장보다 각각 2m와 4m가 길어졌다.

전체 방향도 남향인 기존 야구장과 달리 동북쪽을 향하고 있다. 관중석에는 스키야박스(32실 576석)와 내야 패밀리석(56석), 바비큐석(152석), 잔디석(2825석), 장애인석(2782석) 등의 이벤트석도 들어선다. 새 야구장의 또 다른 특징은 여성과 장애인을 최대한 배려했다는 점이다. 여성 화장실을 남성 화장실의 1.7배 비율로 마련하고, 파우더룸과 기저귀 갈이대 등도 함께 설치했다. 공유 수유실 4곳과 유아놀이방 2곳은 물론 외야 관람석에 어린이를 위한 샌드파크 놀이공간도 배치했다. 'BF(장애 없는 생활환경)' 최우수 등급으로 설계됐으며, 장애인 전용화장실 규격을 기존 2.0×2.1m에서 전동휠체어 회전반경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지정석은 보호난간도 높이에 맞도록 조정해 관람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임희진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새 야구장은 국내 최초 무장애 친환경 경기장으로 지어지고 있다"면서 "올 연말까지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恨과 꿈' 해태·KIA로 폭발시킨 호남의 명소

1면에서 계속

10번의 우승 역사가 만들어진 곳이지만 무등경기장에서 우승 축포가 터진 적은 1987년 한 차례밖에 없다. 잠실까지 건너가서야 승자가 결정되곤 했지만 1987년 삼성을 상대로 4연승을 거두며 안방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우승 행가래를 쳤다. 진한 감동과 환희 뒤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있었다. 모기업이었던 해태가 휘청거리면서 타이거즈 전설들이 하나 둘 팔려나갔다. 배고픈 호남의 역사를 담은 배고픈 야구 그리고 타이거즈 왕조의 몰락에 조금씩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2001년 7월29일 쓸쓸하던 경기장에 모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일본으로 떠났던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 돌아온 날이기도 했지만 경기장은 흥겹지 않았다. 9차례 우승 행가래를 받았던 타이거즈의 상징 김응용 감독이 파란 유니폼을 입고 3루터아웃을 지켰던 이날, 사람들은 경기가 끝난 뒤 어깨 동무를 한 채 눈물의 노래를 불렀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전국체전 암사사고 아픔 DJ 대선유세 구름인파 5·18 때 차량시위 출발지 수많은 야구스타 배출

해태라는 이름이 프로야구에서 사라진 고향전, 서러움의 눈물이 무등경기장을 적셨다. <별들의 고향> 2012년 5월26일 작별의 아쉬움에 무등경기장이 다시 흐느꼈다. 이날은 그라운드엔 불던 이종범의 바람이 그치던 날이었다. 전설이 떠나가던 이날 관중석을 빼곡히 채운 팬들은 이종범을 외치며 다시 눈물을 흘렸다. 무등경기장은 야구팬들과 함께 전설을 키운 산실이었다.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천재 이종범을 비롯해 '홀런왕' 김봉연, '오리공명' 김성환, '타격의 달인' 김종모,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 '재간둥이' 이순철, '해결사' 한대화, '핵 잡수함' 이강철, '노지침' 장재근 등

수 많은 전설이 무등경기장에서 야구 꽃을 피웠다. 스타들을 보기 위해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26만1182명이 무등을 다녀갔고, 지난 2011년에는 역대 최대 관중인 58만2653명이 찾았다. 3일까지 누적 관중은 1030만 7887명. 타이거즈를 대표하는 별이자 7대 사령탑인 선동열 감독에게 무등경기장은 인생이다. 야구 끝나무에서 지도자로 무등시대의 시작과 끝을 보내게 됐다. 선 감독은 "1973년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무등경기장에서 시합을 했던 기억이 있다. 마운드에서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 다 있었는데 6번이 우승을 했던 곳이다. 아마 선수, 프로 선수 그리고 지도자로 보낸 뜻깊은 구장이자 추억의 구장이다"고 말했다. 타이거즈의 또 다른 레전드 이순철 수석 코치와의 특별한 인연이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다. 선 감독은 "광주일고 2학년 때 광주상고(현 동성고)와 춘계 결승전을 했는데 1-1로 맞선 9회 투아웃에서 홈런을 맞은 기억이 있다. 던지는 순간 실투라고 생각하고 뒤도 돌

아보지 않았는데 그 당시 타자가 이순철 수석코치"고 웃었다. 찬란했지만 아픔도 많았던 무등경기장과 타이거즈의 32년의 인연이 아쉬움 속에 마지막 날을 맞았다. KIA는 4일 무등경기장 최종전을 맞아 경기가 끝난 뒤 팬들에게 그라운드를 개방해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 전에는 5시30분부터 20여분간 윤석민·나지안·안치홍·빌로우·소사가 참가하는 팬사인회를 연다. 넥센과의 최종전 티켓을 별도로 제작하고 이를 구매하는 팬들에게 구매한 티켓과 동일한 티켓 1매를 보너스로 증정하는 '1+1' 행사도 연다. 또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2014 신인 순천 효천고 투수 차명진, 연세대 투수 박상욱 등이 경기에 앞서 애국가를 부를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새 야구장이 건립되면 무등경기장을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장으로 이용하고 이후에는 생활체육경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리 서로 맞잡은 손 행복한 가정! 행복한 학교!

가정이 바로서야 학생이 즐겁고 학생이 즐거워야 학교생활이 즐겁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일보